

경제위기 시기의 취약계층의 고용과 빈곤

-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

반 정 호*

I. 머리말

최근 세계경제가 회복기조로 돌아섰고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보다 한 발 앞서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소득과 빈부격차의 확대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기가 본격화되면서 고용사정이 극도로 나빠지고 있다. 취업자수가 지난해 말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고 2009년 5월에는 21만 9천 명이 줄면서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고용의 감소세는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영세자영자를 중심으로 하는 취약계층의 고용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이 취약계층의 고용악화로 이어진 것이다.

고용악화 상황에 대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희망근로사업, 청년인턴제 등) 정책으로 2009년 6월 현재 취업자수를 7개월만에 증가세로 돌려놓기는 했지만 창출된 일자리의 질의 문제와 취업의 지속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아울러 노동시장 불안이 파생하는 소득불평등과 (근로)빈곤층의 확대는 보다 안정되고 견고한 사회보장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도 언급되었지만 경제위기 시기에 우리 노동시장은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자영자 등의 취약계층이 주로 타격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은 실업자이거나 일자리가 불안정한 취업자로 노동시장에서 '저기능-저소득'의 구조적 함정에 놓여 있는 계층으로 정의되곤 한다. 즉, 현재의 직업능력이 취약하여 실업상태에 놓여있고 실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근로계층이거나, 현재 취업하고 있더라도 단순직무의 비정규직에 취업하거나 영세기업의 저임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jhban@kli.re.kr).

금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계층이다. 이들은 대부분 일자리가 불안하고 숙련수준도 낮아서 실업에 처할 경우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이며, 자산을 축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업이나 고용불안이 장기화되면 이들이 속한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계층이다(유경준·심상달 편, 2004). 이와 같은 이유에서 취약계층은 노동시장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가구 혹은 개인의 빈곤지위 여부와 직결되는 한계계층이다.

본고는 경제위기 시기의 취약계층의 고용과 빈곤상태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주로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그 가구를 대상으로 카드대란으로 일컬어지는 2003년도 시점과 최근 경제위기 시점에서의 고용변화와 빈곤상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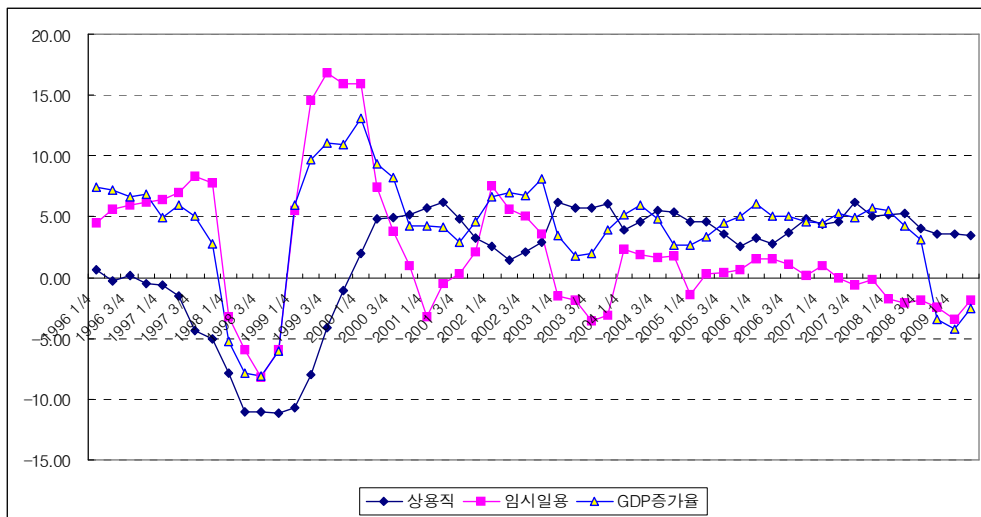
2009년 상반기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상용직 근로자 증가세가 유지되었다는 점과 자영자 및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두드러지게 감소했다는 점이다. 한국노동연구원(2009)에 따르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상반기에 자영자는 2.0% 감소한 반면, 상용직은 9.5% 감소, 임시일용직은 각각 0.8%, 13.3% 감소하여 경기침체에 상용직과 일용직의 감소가 자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 상반기 임시직은 71천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2008년의 상반기의 98천 명에 다소 못미치는 수치이다. 특히 2009년 6월 희망근로자 프로젝트의 영향으로 임시직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이와 같은 임시직 고용감소를 둔화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일용직은 2009년 상반기에 121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2008년 상반기(44천 명)와 2007년 상반기(46천 명)에 비해 감소폭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임시직과 일용직의 고용변화 패턴에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임시일용직의 감소가 지속되어 왔고, 반면 상용직 고용이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함에 따라 2009년 상반기 임금근로자는 124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은 1998년 1/4분기부터 2009년 2/4분기까지의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증감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감소현상 및 상용직 근로자의 고용이 견실하게 유지되는 현상은 2003년 카드대란 시기와 매우 흡사하다. 또한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고용 추이는 경기변동(GDP 증가율) 추이와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즉, 경제위기 시기에 노동시장에서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같은 취약

계층의 고용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tkinson(1984)의 핵심-주변부 모 형에 따르면, 기업에서는 남성, 상용직, 전일제 근로자 등의 핵심노동력은 기능적 유연성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여성, 임시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등의 주변노동력은 수량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완충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임시일용직 등의 취약 계층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업의 산출량 변화에 따라 노동투입 총량을 신속하게 조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경제위기 시기에 기업의 고용조정은 생산 물에 대한 수요가 변화하더라도 상용직의 고용조정에는 소극적일 수 있는데, 이는 상용 직의 법적·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임시일용직의 경우보다 더 많은 고용조정 비용을 수 반하기 때문이다(Bentolila & Saint-Paul, 1992; Avowd & Kramarz, 2003; Alonso-Borrego et al., 2005; 황선웅 2009에서 재인용).

[그림 1]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증감 추이는 GDP 증가율과 동행 하거나 혹은 1분기 정도를 선행하고 있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임시일용직 고용이 경기 순응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관련하여 황선웅(2009)의 연구에서는 임시일용직 및 상용직, 전체 임금근로자 모두 경기순응적 특징을 갖고 있지만 시차구조 면에서 임시일용직은 산출을 1분기 선행하는 반면, 상용직은 산출에 2분기 정도 후행하 고 전체 임금근로자는 산출과 동행한다는 실증결과와도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다. 2009 년 2/4분기 GDP 증가율은 전분기에 비해 감소세가 둔화되었고, 임시일용직의 경우도 여 전히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전분기인 2009년 1/4분기에 비해 감소폭이 줄 어들고 있다.

[그림 1] 임금근로자 고용 및 GDP 증가율 추이



자료 : 통계청, KOSIS.

<표 1>은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인적특성과 기업특성별 고용규모와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증가해오던 일자리 증가가 2003

<표 1> 특성별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고용규모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7월)	연평균 증가율
전 체		7,319 (375) [51.6]	7,133 (-186) [49.5]	7,269 (136) [48.8]	7,268 (-1) [47.9]	7,346 (78) [47.2]	7,350 (4) [46.0]	7,200 (-150) [44.4]	7,073 (-179) [43.3]	-0.49
성 별	남성	3,431 (234) [46.9]	3,272 (-159) [45.9]	3,321 (49) [45.7]	3,316 (-6) [45.6]	3,390 (74) [46.1]	3,410 (21) [46.4]	3,285 (-125) [45.6]	3,181 (-143) [45.0]	-1.08
	여성	3,888 (140) [53.1]	3,861 (-27) [54.1]	3,948 (87) [54.3]	3,952 (4) [54.4]	3,957 (4) [53.9]	3,940 (-17) [53.6]	3,915 (-25) [54.4]	3,892 (-36) [55.0]	0.01
년 령 구 분	15~19세	243 (-23) [3.3]	207 (-35) [2.9]	203 (-4) [2.8]	195 (-9) [2.7]	178 (-17) [2.4]	176 (-2) [2.4]	161 (-15) [2.2]	155 (-22) [2.2]	-6.18
	20~29세	2,014 (57) [27.5]	1,846 (-168) [25.9]	1,851 (5) [25.5]	1,768 (-83) [24.3]	1,674 (-95) [22.8]	1,545 (-128) [21.0]	1,458 (-87) [20.3]	1,445 (-37) [20.4]	-4.63
	30~39세	1,924 (70) [26.3]	1,813 (-111) [25.4]	1,825 (12) [25.1]	1,825 (0) [25.1]	1,803 (-23) [24.5]	1,711 (-91) [23.3]	1,644 (-67) [22.8]	1,520 (-145) [21.5]	-3.32
	40~49세	1,679 (155) [22.9]	1,699 (20) [23.8]	1,789 (90) [24.6]	1,797 (7) [24.7]	1,885 (88) [25.7]	1,945 (60) [26.5]	1,911 (-34) [26.5]	1,880 (-42) [26.6]	1.63
	50~59세	882 (46) [12.1]	968 (86) [13.6]	956 (-12) [13.2]	1,023 (67) [14.1]	1,102 (78) [15.0]	1,185 (83) [16.1]	1,235 (50) [17.1]	1,240 (15) [17.5]	4.98
	60세 이상	577 (71) [7.9]	599 (22) [8.4]	644 (45) [8.9]	659 (16) [9.1]	705 (46) [9.6]	788 (82) [10.7]	790 (3) [11.0]	832 (52) [11.8]	5.38
학 력 별	초졸	1,158 (7) [15.8]	1,131 (-28) [15.9]	1,090 (-41) [15.0]	1,040 (-49) [14.3]	1,041 (1) [14.2]	1,051 (10) [14.3]	1,016 (-35) [14.1]	998 (-11) [14.1]	-2.10
	중졸	1,273 (46) [17.4]	1,150 (-123) [16.1]	1,093 (-57) [15.0]	1,056 (-37) [14.5]	1,076 (20) [14.6]	1,063 (-13) [14.5]	1,012 (-51) [14.1]	962 (-65) [13.6]	-3.93
	고졸	3,677 (185) [50.2]	3,563 (-113) [50.0]	3,675 (111) [50.6]	3,703 (29) [51.0]	3,714 (11) [50.6]	3,695 (-19) [50.3]	3,629 (-66) [50.5]	3,513 (-148) [49.8]	-0.65
	초대졸	582 (78) [8.0]	567 (-15) [8.0]	611 (44) [8.4]	635 (24) [8.7]	666 (31) [9.1]	686 (20) [9.3]	670 (-16) [9.3]	695 (15) [9.8]	2.56
	대졸 이상	629 (60) [8.6]	722 (93) [10.1]	800 (79) [11.0]	833 (33) [11.5]	849 (16) [11.6]	855 (6) [11.6]	858 (3) [11.9]	890 (28) [12.6]	5.08

주: 1) 연평균 증가율은 2009년 1~7월 평균 임시일용직 고용규모와 2002~2008년은 연간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것임.

2) ()안은 전년대비 증감규모를 나타내며, []안은 구성비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년 카드대란 시기와 2008년 및 최근의 경제위기 시점에서 고용감소가 두드러진다. 카드대란 시기인 2003년에는 전년대비 임시일용직의 규모는 186천 명이 감소했고, 2008년과 2009년(1~7월 평균)에는 각각 150천 명과 179천 명이 감소해 위기 상황에서 임시일용직 고용감소가 민감하게 나타났다.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인적속성별 고용규모를 살펴보면, 경제위기 시기에 남성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고용규모가 크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2003년의 경우 전년대비 159천 명이 감소했고, 2008년과 2009년(1~7월 평균)의 경우 각각 125천 명, 143천 명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여성비중은 경제위기 시기에도 큰 변화 없이 55%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성별 구성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연령별로는 저연령층 임시일용직 규모가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03년 카드대란 시기는 20·30대의 임시일용직 고용규모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8년과 최근의 임시일용직 고용동향에서는 40대까지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지속적인 20·30대 젊은 계층의 임시일용직 감소원인에 대해서는 이들 계층의 노동시장 공급감소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산업구조 변동 등에 의한 일자리 감소에 기인한 것인지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의 저학력자를 중심으로 고용규모가 크게 감소했다. 학력별 임시일용직의 구성의 측면에서는 초대졸자와 대졸 이상의 고학력 계층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저학력자의 임시일용직 중심의 고용감소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아울러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은 우리 노동시장에 고학력자가 임시일용직으로의 진입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업규모별로는 카드대란과 최근의 경제위기 시기 모두 10인 이하의 영세규모 사업장에서의 임시일용직 고용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100~300인 미만의 중견기업은 2003년 카드대란 당시에는 임시일용직 고용감소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2007년부터 최근까지는 임시일용직 고용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는 카드대란 시기에는 전년대비 25천 명 정도의 임시일용직 고용감소가 나타났고, 2005년을 제외한 2007년까지 추세적으로 임시일용직 고용이 감소하고 있었으나 2008년과 2009년(1~7월 평균)에는 임시일용직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8년(1~7월 평균)에 비해 2009년(1~7월 평균)에 300인 이상 기업에서 111천 명 정도의 고용(임금근로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중 상용직의 증가는 84천 명이었고, 임시일용직 증가는 27천 명이었으며, 300인 이상 기업에서 늘어난 일자리의 24.1%를 임시일용직이 차지한다. 결과적으로 경제위기 상황에서 임시일용직의 구조조정은 주로 영세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 임시일용직의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특성별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고용규모

(단위: 천 명,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7월)	연평균 증가율
구 모 별	1~4인	2,698 (128) [36.9]	2,605 (-92) [36.5]	2,634 (29) [36.2]	2,669 (35) [36.7]	2,676 (8) [36.4]	2,719 (43) [37.0]	2,676 (-43) [37.2]	2,542 (-140) [35.9]	-0.85
	5~9인	1,830 (149) [25.0]	1,689 (-140) [23.7]	1,739 (50) [23.9]	1,726 (-13) [23.8]	1,757 (31) [23.9]	1,773 (16) [24.1]	1,749 (-24) [24.3]	1,680 (-88) [23.8]	-1.21
	10~22인	1,490 (74) [20.4]	1,519 (29) [21.3]	1,574 (55) [21.7]	1,539 (-35) [21.2]	1,534 (-5) [20.9]	1,572 (38) [21.4]	1,511 (-62) [21.0]	1,535 (18) [21.7]	0.42
	30~99인	834 (12) [11.4]	854 (21) [12.0]	868 (13) [11.9]	857 (-11) [11.8]	887 (31) [12.1]	855 (-32) [11.6]	842 (-13) [11.7]	873 (22) [12.3]	0.66
	100~299인	252 (5) [3.4]	273 (22) [3.8]	271 (-2) [3.7]	289 (18) [4.0]	306 (17) [4.2]	277 (-30) [3.8]	260 (-17) [3.6]	253 (-17) [3.6]	0.09
	300인 이상	216 (6) [2.9]	191 (-25) [2.7]	183 (-8) [2.5]	188 (5) [2.6]	185 (-3) [2.5]	154 (-31) [2.1]	163 (9) [2.3]	189 (27) [2.7]	-1.87
산 업 별	제조업	1,379 (-20) [18.8]	1,283 (-96) [18.0]	1,254 (-29) [17.2]	1,171 (-82) [16.1]	1,157 (-14) [15.8]	1,069 (-88) [14.5]	1,014 (-55) [14.1]	896 (-153) [12.7]	-5.98
	건설업	976 (105) [13.3]	1,010 (34) [14.2]	1,006 (-4) [13.8]	955 (-51) [13.1]	956 (1) [13.0]	968 (12) [13.2]	912 (-56) [12.7]	855 (-71) [12.1]	-1.87
	서비스업	4,812 (298) [65.8]	4,679 (-133) [65.6]	4,839 (160) [66.6]	4,979 (140) [68.5]	5,072 (93) [69.0]	5,144 (72) [70.0]	5,118 (-26) [71.1]	5,157 (33) [72.9]	0.9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289 (109) [31.3]	2,195 (-95) [30.8]	2,260 (65) [31.1]	2,281 (21) [31.4]	2,239 (-42) [30.5]	2,225 (-14) [30.3]	2,176 (-48) [30.2]	2,130 (-56) [30.1]	-1.03
	사업개인공공 등	2,006 (189) [27.4]	2,003 (-3) [28.1]	2,087 (84) [28.7]	2,187 (100) [30.1]	2,278 (91) [31.0]	2,341 (63) [31.8]	2,385 (44) [33.1]	2,461 (94) [34.8]	2.97
	운수통신금융	517 (1) [7.1]	482 (-36) [6.8]	492 (11) [6.8]	511 (19) [7.0]	556 (45) [7.6]	579 (23) [7.9]	557 (-22) [7.7]	566 (-4) [8.0]	1.28
	기 타	152 (-9) [2.1]	161 (9) [2.3]	171 (9) [2.3]	163 (-8) [2.2]	161 (-2) [2.2]	169 (8) [2.3]	156 (-13) [2.2]	165 (12) [2.3]	1.19

주: ()안은 전년대비 증감규모를 나타내며, []안은 구성비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Ⅲ. 임시일용직 가구의 소득과 빈곤

최근 금융위기와 경기불황 속에서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을 중심으로 고용조정이 진행되었고 이는 해당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경제위기 악화에 따라 노동시장의 고용조정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었고, 임금조정도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임시일용직의 임금이 가장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했다. 임금조정의 규모도 임시일용직이 상용직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난다. 2008년 1/4분기부터 2009년 2/4분기까지 상용직 임금의 평균증가율은 2.4% 감소한데 비해 임시일용직의 경우는 8.2% 정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상용직 대비 임시일용직의 임금수준은 2007년 1/4분기 32.7%에서 2009년 2/4분기 현재 30.0%로 2.7%p 감소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도시근로자가구(2인 이상)의 가구주 고용형태별 시장소득(경상소득-공적이전소득)의 분기별 추이를 살펴보자. <표 4>에서처럼 우리나라 도시근로자의 시장소득은 2002년 4/4분기 1,434천 원에서 2008년 4/4분기 현재 1,912천 원으로 478천 원 증가했다. 사무직 가구의 경우는 같은 기간 569천 원, 상용노무직 가구는 392천 원 증가한 반면, 임시일용직 가구는 102천 원 증가하는데 그쳤다.²⁾ 이처럼 임시일용직 가구

<표 3> 종사상 지위별 실질임금 추이(2007년 1/4분기~2009년 2/4분기)

(단위: 천 원, %)

	2007				2008				2009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임금근로자	2,425	2,304	2,472	2,565	2,478 (2.2)	2,339 (1.5)	2,405 (-2.7)	2,402 (-6.4)	2,341 (-5.6)	2,239 (-4.3)
상용직	2,571	2,443	2,622	2,725	2,617 (1.8)	2,506 (2.6)	2,558 (-2.4)	2,563 (-5.9)	2,467 (-5.7)	2,381 (-5.0)
임시일용직	841	871	872	866	826 (-18)	744 (-145)	792 (-9.2)	754 (-12.9)	743 (-10.0)	715 (-4.0)
상용직 대비	32.7	35.6	33.3	31.8	31.5	29.7	31.0	29.4	30.1	30.0

주: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KOSIS.

2) 통계청 「가계조사」에서 상용노무직 가구라 함은 가구주가 관공서 또는 개인기업체(상점 포함)에 고용되어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며, 임시일용직 가구는 가구주가 관공서 또는 개인기업체(상점 포함)에 30일 미만의 기간 또는 매일매일 계약에 의하여 주로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는 시장소득의 절대규모가 다른 가구에 비해 적을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시기에는 소득의 감소를 경험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임시일용직 가구는 카드대란 시기인 2003년 2/4분기에 전년동분기대비 1.8%의 시장소득 감소를 경험했고, 2007년 3/4분기 이후(2008년 3/4분기 제외)부터 시장소득이 정체 혹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2005년을 제외하면 같은 시기 사무직 가구나 상용노무직 가구에서는 시장소득의 정체 혹은 감소가 발견되지 않는다.

<표 4> 가구주 고용형태별 시장소득 추이(도시근로자, 2인 이상)

(단위:천 원, %)

		근로자 가구(전체)	사무직 가구	상용노무직 가구	임시일용직 가구
2002	1/4분기	1,378(8.4)	1,715(9.3)	1,184(7.4)	910(10.2)
	2/4분기	1,375(11.0)	1,694(10.7)	1,187(11.5)	983(13.8)
	3/4분기	1,456(7.6)	1,799(8.1)	1,249(7.9)	1,022(5.1)
	4/4분기	1,434(5.5)	1,773(5.7)	1,234(6.1)	1,011(4.3)
2003	1/4분기	1,456(5.7)	1,801(5.0)	1,260(6.4)	971(6.8)
	2/4분기	1,438(4.6)	1,752(3.4)	1,274(7.3)	966(-1.8)
	3/4분기	1,546(6.2)	1,905(5.9)	1,394(11.6)	1,055(3.2)
	4/4분기	1,538(7.2)	1,881(6.1)	1,421(15.1)	1,061(4.9)
2004	1/4분기	1,573(8.0)	1,949(8.2)	1,463(16.1)	1,028(5.8)
	2/4분기	1,543(7.3)	1,881(7.4)	1,438(12.9)	1,075(11.2)
	3/4분기	1,663(7.6)	2,047(7.4)	1,582(13.5)	1,093(3.6)
	4/4분기	1,619(5.3)	1,993(6.0)	1,549(9.0)	1,065(0.4)
2005	1/4분기	1,638(4.1)	2,041(4.7)	1,425(-2.6)	1,013(-1.4)
	2/4분기	1,609(4.3)	1,970(4.7)	1,422(-1.1)	1,033(-3.8)
	3/4분기	1,718(3.3)	2,118(3.5)	1,483(-6.2)	1,095(0.2)
	4/4분기	1,686(4.1)	2,069(3.8)	1,451(-6.3)	1,100(3.3)
2006	1/4분기	1,715(4.7)	2,109(3.3)	1,462(2.6)	1,039(2.5)
	2/4분기	1,708(6.1)	2,084(5.8)	1,477(3.9)	1,125(8.9)
	3/4분기	1,791(4.3)	2,202(4.0)	1,525(2.8)	1,152(5.2)
	4/4분기	1,836(8.9)	2,257(9.1)	1,563(7.7)	1,216(10.6)
2007	1/4분기	1,842(7.4)	2,314(9.7)	1,545(5.7)	1,090(4.9)
	2/4분기	1,761(3.1)	2,143(2.8)	1,500(1.6)	1,137(1.1)
	3/4분기	1,891(5.6)	2,334(6.0)	1,588(4.1)	1,111(-3.6)
	4/4분기	1,858(1.2)	2,284(1.2)	1,587(1.5)	1,131(-7.0)
2008	1/4분기	1,953(6.0)	2,431(5.1)	1,640(6.1)	1,081(-0.8)
	2/4분기	1,874(6.4)	2,273(6.1)	1,598(6.5)	1,139(0.2)
	3/4분기	2,003(5.9)	2,451(5.0)	1,696(6.8)	1,163(4.7)
	4/4분기	1,912(2.9)	2,342(2.6)	1,626(2.5)	1,113(-1.6)

주: 1) 도시근로자(2인 이상) 가구의 시장소득은 해당 소득금액을 가구원수의 제공근으로 나눠주는 균등화 방식 및 개인 기준 가중치를 활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므로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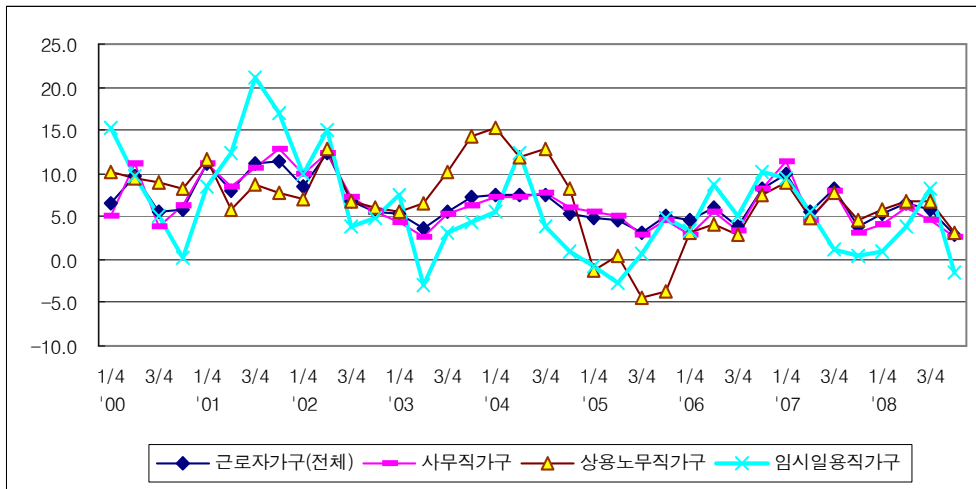
2)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림 2]에서는 가구의 경상소득에서 직접세와 사회보장부담금을 차감한 가처분소득(disposal income)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임시일용직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증가세로 전환되다가 2002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카드대란 시기인 2003년 2/4분기에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이후 회복되던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2007년 1/4분기 이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불황이 본격화되었던 2008년 4/4분기 임시일용직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전년동기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같은 시기 사무직 가구와 상용노무직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2.6%, 3.0% 증가했다.

2003년 카드대란 시점과 2008년 경제위기 시점에 임시일용직 가구의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모두 감소를 경험했다. 이와 같은 임시일용직 가구의 소득감소는 가구주 본인 및 가구원의 근로소득(급여+상여금)과 사업소득³⁾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3]은 가구주의 고용형태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기간인 1999년 1/4분기를 기준(1999년 1/4분기=100)으로 사무직 가구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2008년 4/4분기 현재 172%까지 증가했고, 상용노무직 가구는 197%까지 증가한데 비해 임시일용직 가구는 150%선에 머물고 있다. 즉,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 사무직 가구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1.7배 가량 증가했고, 상용노무직 가구는 2배 가까이

[그림 2] 가구주 고용형태별 가처분소득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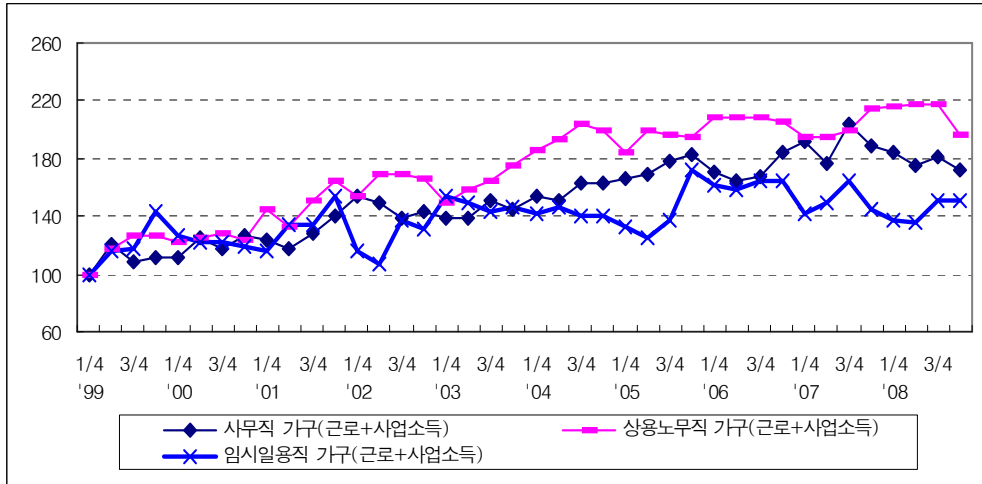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3) 사업소득(business income)은 가구주 본인이나 가구원이 사업이나 상점의 자영업주 또는 고용주로 직접 사업을 경영하거나 지식 또는 재능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 중에서 가계생활 유지를 위해 가계로 전입된 소득을 말한다.

[그림 3] 가구주 고용형태별 근로+사업소득 추이

(1999년 1/4분기=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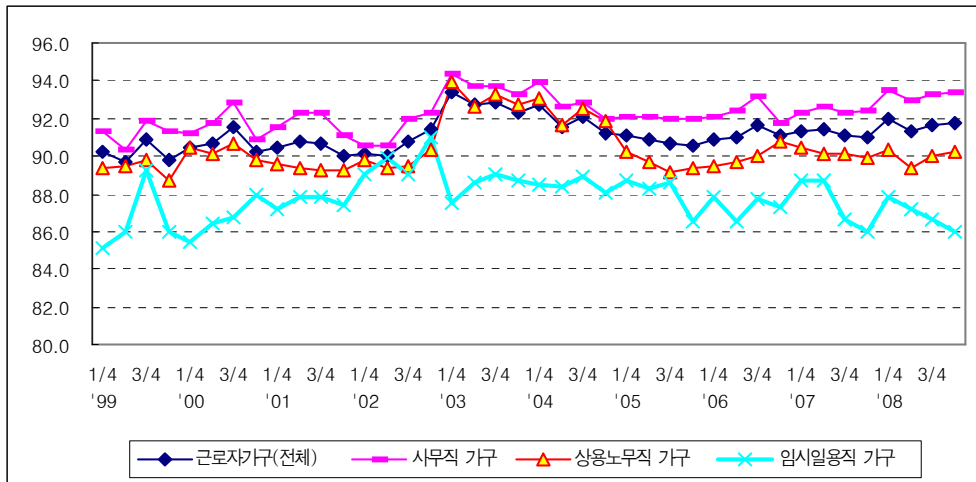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증가한데 비해 임시일용직 가구의 해당 소득은 1.5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추세적으로도 2003년 카드대란 시기에 임시일용직 가구의 소득감소가 두드러졌으며, 2007년부터 최근 까지 감소세가 확인된다. 사무직 가구는 외환위기 이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7년 3/4분기 이후 주춤해지고 있으며, 상용노무직은 카드대란 시기인 2003년에도 지속적으로 소득이 증가했고, 2007년 이후에도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08년 4/4분기에 들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4]는 가구주의 고용형태별로 경상소득(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대비 근로소득의 비중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외환위기 시기인 1999년 사무직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근로소득 비중은 91.2% 수준을 유지했고, 이는 카드대란 시기인 2003년에는 93.8%까지 증가했으며, 2008년 최근에는 소폭 하락한 93.3%를 유지하고 있다. 상용노무직의 경우는 1999년 89.4%에서 2003년 89.3%로 비중의 큰 변화가 없이 유지되다가 2008년에는 90.0%까지 증가했다. 임시일용직의 경우는 1999년 86.6%에서 2003년 88.5%로 소폭 증가하지만 최근에는 86.9%로 그 비중이 1999년 수준으로 하락하는 양상이다. 사무직 가구와 임시일용직 가구의 근로소득 비중의 차이는 1999년 4.6%p에서 2003년 5.3%p, 2008년에는 6.4%p까지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상용노무직 가구와 임시일용직 가구는 1999년 2.8%p에서 2003년과 2008년에는 각각 4.6%p, 3.1%p까지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추세적으로도 임시일용직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근로소득의 비중은 다른 가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경기불황에는 그 비중이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경상소득 대비 근로소득 비중 추이



자료 :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경제위기 시기에 가구의 소득은 가구주나 가구원의 안정된 고용을 바탕으로 하는 근로소득이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임시일용직 가구처럼 가구주의 불안정한 고용은 규칙적이고 안정된 근로소득의 확보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가구경제의 불안정으로 이어진다. 특히 이들의 고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경제위기 시기에는 더욱 그러하다. 임시일용직 가구의 경우, 2003년 1/4분기에 경상소득 대비 근로소득의 비중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사무직과 상용노무직 가구에서 같은 시기 비중이 증가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임시일용직 가구는 2008년 1/4분기 이후 이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데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사무직과 상용노무직 가구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다음은 가구주의 고용형태별로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을 살펴보도록 하자.4) 우선 도시근로자(2인 이상) 가구의 (가구주)고용형태별 절대빈곤율은 사무직 가구에서 2%대로 가장 낮고 상용노무직 가구에서 6~7%대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임시일용직은 2003년 16.2%에서 2008년 현재 21.2%까지 절대빈곤율이 증가했다. 이는 2008년 기준 사무직 가구(1.9%)과 상용노무직 가구(6.2%)의 빈곤율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추세적으로

4) 표본가구의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을 산출하기 위해 본 연구는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선으로 이용하였다. 절대적 빈곤선은 보건복지가족부가 매년 발표하는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활용하였으며, 최저생계비가 공식적으로 공표된 2000년 이전 시기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계측치를 이용하였다. 또한 8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6인 가구와 7인 가구의 차액을 일률적으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생계비를 산출하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비중을 절대빈곤율로 정의하였다. 상대빈곤율은 중위소득 50% 미만의 OECD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보면 사무직과 상용노무직 가구의 절대빈곤율은 외환위기 시기인 1999년의 빈곤율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임시일용직의 취약계층 가구에서는 경제위기 시기에 빈곤율이 크게 높아진다. 외환위기 시기인 1999년의 경우 임시일용직 가구의 절대빈곤율은 28.2%로 임시일용직 가구의 약 30%가 절대빈곤선 이하에 놓여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외환위기 이후 임시일용직 가구의 절대빈곤율은 크게 하락하여 2002년 12.6%까지 감소하지만 2003년 카드대란 시기에 다시 16.2%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2003년 이후 17~18%선에 머무르던 절대빈곤율은 2008년에 21.2%로 다시 높아진다.

분석대상을 전국가구(2인 이상)으로 확대하면 임시일용직의 빈곤율은 2003년 17.8%로 이 수치는 자영자와 무직가주로 구성된 근로자외 가구의 절대빈곤율(18.8%)과 비슷한 수치이다. 2003년 이후 전국 임시일용직 가구의 절대빈곤율은 19% 후반대를 유지하다가 2008년에는 23.7%까지 증가한다. 이는 근로자외 가구의 절대빈곤율 22.6%보다 높은 수치이다.

도시근로자(2인 이상)를 대상으로 하면 임시일용직 가구의 상대빈곤율은 1999년 16.0%로 매우 높았으나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11.3%까지 하락하였다. 그 후 카드대란 시기인 2003년 15.7%까지 다시 증가해 외환위기 시기의 상대빈곤율 수준까지 증가했다. 그 이후 등락을 거듭하던 임시일용직 가구의 빈곤율은 2008년 16.9%까지 증가해 외환위기 시기의 상대빈곤율보다 높아졌다. 외환위기 시기 8.3%였던 사무직 가구의 상대빈곤율이 카드대란 시기인 2003년에는 7.3%로 오히려 하락했고, 2008년 최근에는 7.8%를 기

<표 5> 가구주 고용상태별 빈곤율 추이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절대 빈곤율	도시 근로자	사무직	2.7	1.7	1.8	1.8	2.0	2.3	2.1	2.0	2.1	1.9
		상용노무직	9.4	7.8	6.8	5.3	4.7	3.4	7.3	7.2	6.2	6.2
		임시일용직	28.2	20.8	16.7	12.6	16.2	14.8	19.9	18.7	17.9	21.2
	전국	사무직	-	-	-	-	2.2	2.2	2.1	2.0	2.1	1.8
		상용노무직	-	-	-	-	5.2	3.7	7.8	7.4	6.1	6.8
		임시일용직	-	-	-	-	17.8	16.7	21.4	20.2	19.6	23.7
	근로자외가구	-	-	-	-	18.8	18.6	20.3	21.2	21.8	22.6	
상대 빈곤율	도시 근로자	사무직	8.3	6.7	7.3	7.8	7.3	8.1	8.4	8.4	8.0	7.8
		상용노무직	8.0	8.7	8.7	8.0	8.8	8.4	11.5	11.3	10.5	10.7
		임시일용직	16.0	13.2	11.6	11.3	15.7	15.0	16.7	15.9	15.9	16.9
	전국	사무직	-	-	-	-	7.8	8.6	8.3	8.3	7.9	7.7
		상용노무직	-	-	-	-	8.8	8.8	11.5	11.5	10.4	10.9
		임시일용직	-	-	-	-	16.3	16.1	17.6	16.9	16.8	18.2
	근로자외가구	-	-	-	-	20.4	21.4	22.4	23.3	23.3	23.1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특했다. 상용노무직 가구는 1999년 8.0%에서 2003년 8.8%로 빈곤율의 변화가 크지 않았고, 2008년 현재는 10.7%로 상대빈곤율이 소폭 증가한 상태이다.

IV. 맺음말

세계 금융위기와 더불어 시작된 경기불황의 여파는 고용과 임금, 가구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의 경기불황은 영세자영업자 및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고용악화로 이어졌고, 이는 곧 이들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과 빈곤으로 직결된다. 본고는 1999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위기 시점에서의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고용과 빈곤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외환위기는 말할 나위도 없이 2003년 카드대란 시기와 2008년부터 최근까지의 경제위기 시기에 임시일용직 고용의 감소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고용감소를 주도했다. 반면 2003년 카드대란 시기와 최근 경제위기 시기에 상용직 고용은 견실하게 유지되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이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저연령·저학력 계층 및 영세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임시일용직의 임금도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가구부문에서도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가구소득이 위기시점에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와 같은 임시일용직 가구의 가구소득 감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임시일용직 가구의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은 사무직 가구에 비해 10배, 상용노무직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이들 가구의 빈곤위험도가 높은 현실이다.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 모두 경제위기 시점에서 특히 높아지는데, 이는 임시일용직 고용이 주로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형성되는 특징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상용직보다 상대적으로 고용조정이 용이하고 조정비용도 적은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방식을 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기업의 고용조정 기제에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위기시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용불안 계층이다. 아울러 임시일용직 고용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위기 상황에서 이들의 임금과 가구의 소득은 매우 큰 폭의 감소를 경험한다. 결과적으로 경기불황기에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개인의 고용불안과 가구의 빈곤위험을 동시에 경험하는 한계계층임에 틀림이 없어 보인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 및 가구생계유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희망근로 및 청년인턴제도 등의 고용의 총량을 위기이전으로 복원하려는 고용정책도 중요

하지만 취약계층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이들 가구가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KL**

<참고문헌>

- 유경준·심상달 편(2004), 『취약계층의 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 황선웅(2009), 「경기변동과 임시일용직 고용」, 『노동정책연구』 9(1), 한국노동연구원, pp.221~245.
- 한국노동연구원(2009), 「2009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전망」, 『노동리뷰』, 통권 56호, pp.5~7.
- Atkinson, J.(1984), “Manpower Strategies for Flexible Organizations,” *Personnel Management* 16(8), pp.28~31.
- Alonso-Borrego, C. J., Fernandez-Villaverde, & J. E. Galdon-Sanchez.(2005), “Evaluating Labor Market Reforms : A General Equilibrium Approach,” NBER Working Paper 11519.
- Avowd, J. M. & F. Kramaz.(2003), “The Cost of Hiring and Separations,” *Labour Economics* 10(5), pp.499~530.
- Bentolila, S. & G. Saint-Paul(1992), “The Macroeconomic Impact of Flexible Labor Contracts, with an Application to Spain,” *European Economics Review* 36(5), pp.1013~1047.